제 47 호 환경적 장애 1

환경적 장애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거나 생각을 할 수 없는 주위 환경에서 비롯합니다. 한국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여럿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되었답니다.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는 좋았는데 "시끄러운" 하드-록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점이 영 못마땅하였다고 합니다. 비트에 맞추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책을 읽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꽝꽝 울리는 스피커 바로 옆에 앉아 전율을 온몸으로 느끼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기가 차서 학생들보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음악을 끄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라고 점잖게 타일러주었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효과가 배로 난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하더랍니다. 이거 완전히 구석기 시대 사람 취급하는 투가 분명하였답니다.

모차르트 음악이 유아의 지능을 발달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한 때 떠들어댔지만 (최근에 이 연구 결과를 부인하는 연구가 나왔음), 록음악이나 랩 음악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말하면 잔소리 밖에 안 되는지라 맘대로 하게 내버려두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학생들이 중간 시험을 볼 적에 교수님께서 붐박스(카세트 플레이어)를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드-록음악을 크게 틀었답니다. "교수님, 제발 꺼주세요. 정신 집중이 안 되요." 음악을 들어야지 공부가 더 잘된다고 하던 학생의 하소연이었다고 합니다.

© 조벽, 1999